

서 울

2학기 정기총회 시작돼

중국어과

중국어과 학생회는 15일(수)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이 날에는 교육관계법 반대와 신천적논의, 준회원 권한에 대한 회칙개정, 방학기간의 사업보고와 과 소모임들의 공언도 진행했다. 이번 정기총회를 위해 설문지를 돌려 과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개강총회를 준비해온 중국어과 학생회장 이강산(3)은 "정기총회 본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생각에 보는 차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15일(수) 대학원 건물 311호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이 날 행사에는 교육관계법 설명, 과대동계 준비의, 1학기 진보장담 준비모임의 활동대역을 소개한다. 또, 정치외교학과 노래과 '꽃다지'와 물동계 공연도 진행했다. "개강후에도 과 분위기가 많이 산만해졌었다"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황인모(3)은 "총회를 통해 과 학생들이 이 모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경계열 1학년

상경계열 1학년 개강총회가 지난 10일(금) 사회과학관 206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상경계열 학생 50명가량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학기 사업보고 △예산보고 △제일위원회와 활동동을 듣는 설문지 분석발표와 계열별대신과로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도 선출된 박병복군은 "계열학생들의 행보를 찾아주는 일을 목표로 삼겠다"며 "집행부와 논의의 통해 2학기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어과

인도어과 학생회는 16일(목) 5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과 노래과 '날개'의 공연으로 시작해 △방학중정서보고 △1학기 결산보고 △예산보고 △2학기 사업계획보고 △교과관계법 개정 논의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후에는 단체 사진도 찍는다. 행사장을 제하한 인도어과 학생회장 김성식(3)은 "지금까지 정기총회와 형식적으로 흐른 면이 많았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에서 정기총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학생위원회 세미나 개최

여학생 위원회는 여성학 동아리 '별들'들과 함께 15일(수) 2학기 1차 세미나를 연다. 동아리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2학기부터는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계획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는 여학생위원회 교육부장 박혜민(사상·포스트)은 "이번 세미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학원론을 주제로 선정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학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양어대 학생 터키가둬기 성공 전담

서양어대 학생 장선영(서번어)교수는 지난 9일(목) 터키가둬기성공 40인원을 김대성(터키가둬기)교수에게 전달했다. 이 날 전달한 성금은 지난해 20일(목)에 열었던 교수진대회에서 모금한 것으로 결정하고 서양어대 교수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서양어대 학생회장 장선영 교수는 "본 역사는 아니지만 지인으로 피 해 입은 터키어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김대성 교수를 통해 동아리들에게 사에 전달된다.

정기총회 일정

윤 인

- 일본어과 : 15일(월) 5시 30분 공대 201호
- 이태리어과 : 13일(월)
- 영어과 : 14일(화) 5시 30분 모현 부원
- 불어과 : 14일(화) 5시 30분 후북관 식당
- 포르투갈어과 : 14일(화)
- 아랍어과 : 14일(화)
- 제이체국공학과 : 15일(수)
- 사회과 : 15일(목) 5시
- 태국어과 : 16일(목) 5시 30분 공대 203호
- 경제학과 : 16일(금) 5시 장소미정

사 울

- 서번어과 : 14일(화) 5시 대학원 110호
- 베트남어과 : 16일(목) 5시 30분 사회과학관 401호
- 태국어과 : 16일(목) 5시 30분 사회과학관 308호
- 불어과 : 21일(수) 5시 30분 장소미정
- 아랍어과 : 22일(수) 5시 장소미정
- 영어과 : 10월 1일(금) 5시 장소미정

각 과 개강 총회 지난주 이어 이번주 까지

루마니아어과

루마니아어과 개강총회가 오늘(14일) 이른 아침 8시에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민속무용공연에 대한 방정사업을 보고한 후 △제정보고 △교과관계법 반대 등 2학기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루마니아어과 학생회장 정태경(2)은 "결정된 사업에 대해 과 학생들 모두가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영정보학과

총인원 97명 중 90명이 참석한 경영정보학과 개강총회는 "동북극사상무경 경과 및 향후 투쟁계획"이 안건의 중심이 됐다. 경영정보학과는 '동북극사상무경 경과'의 부당한 행정재제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에 한의를 입증하는 서명장에 날인하기도 했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 PC실 운영에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여 대학당국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무역학과

무역학과는 2학기 주요사업인 '무역인'을 11월 셋째주부터 시작하고 행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무역인'의 발' 행사는 동문들

용 인

과 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과회'를 제작, 이번 달 말에 과회지에 완성된 제1호를, 이 외에도 총학생회장 신동현(동구·황기리) 4)은 'TK 2비비'과 '동북극사상무경 상항 보고'를 진행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철학과

철학과 개강총회는 박정근 교수 퇴직 문제와 대학당국이 공학자에게 가한 행정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학기부터 박정근 교수의 복직을 요구해 왔던 철학과는 방정교육부에 재심결구를 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최현태(3)은 "주작전에 재심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에 따라 과 학생들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학과

환경학과는 올해 '환경학과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11월 '모교방문의 날'을 10주년 기념행사의 날로 정했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행사내용은 과 학생회에서 기획할 예정이다. 또 방정 사업으로 '농민학생대환' 등도 보고한 후 동북극사상무경 상항을 안건으로 상정, 토론에 붙였다. 토론자로서 학생들은 자연에서 개인공학을 철학하고 대표공학을 전환한 사상을 공유한 후 개인 공학을 철학했다. 앞으로 총학생회의 동북극사상무경 사업인 '동북극사상무경 상항'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도어과

지난 9일(목) 교양관 302호에서 열린 인도어과 개강총회에서는 1학기 사업보고, 2학기 사업계획에 대해 'TK 2비비'와 '동북극사상무경' 등 학생들에게 11월 21일(수)에 대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대학당국의 행정재제조치로 휴학이 불가한 했던 사례를 들어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동문들 '인도인의 밤' 행사는 11월 중순에 열기로 결정했다.

학자추 총무처에 비품제안

총학생회 학원자추추진위원회(학자추)는 △도서관 사물함 학종 △과 학생회 비품 지급을 위해 지난 9일(목) 학자추는 구제적으로 도서관 1층 자료실 입구의 목욕함 자리와 2층 현재 사물함이 있는 곳에 각각 50개, 100개를 추가할 것과 책상, 책꽂이, 긴타자, 의자, 화의보트, 사물함 등이 학생회실에 필요한 비품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6일 김효식군 사망

김효식(경상·경명보 3)군은 지난 6일(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 고혈압과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아 지난 6일(월) 집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김군의 시신을 친 손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상을 치르고 지난 8일(수) 김군의 시신을 화장시켰다.

외대신문사 지도위원 선정

우리학교는 9월 1일자로 외대신문사 지도위원을 선정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9월 1일까지이다. 이들은 지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 조규정 총장 △지도위원 김성환(외대법학) 권진진

과 학생회사의 남은 비품을 교체, 확충하기 위한 신청도 진행했다. 학자추는 구제적으로 도서관 1층 자료실 입구의 목욕함 자리와 2층 현재 사물함이 있는 곳에 각각 50개, 100개를 추가할 것과 책상, 책꽂이, 긴타자, 의자, 화의보트, 사물함 등이 학생회실에 필요한 비품이라고 제안했다.

외대신문사 지도위원 선정

이외 경명보학과 학생회 또한 7일(화) 인문·경상대 1)은 '보통소설'을 썼다. 이와 관련 경명보학과 학생회장 하지호(3)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친구였다"며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외대신문사 지도위원 선정

결 주간) △위원 정경원(서번어) 박사(문학) 임명(사) 최영(신문방송) 박수영(황기리) 조인환(경명) 김성복(제이체국) 김민철(경명) 김진수(신문방송) 김진수(신문방송)

15일부터 법대 정기학술제 열려

법과대학 정기 학술제가 15(수)일부터 다음달 5일(목)까지 열린다. 학술제는 세미나와 모의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세미나는 15일부터 17일까지 모의재판은 20일(월)과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시작 시간은 5시 30분, 장소는 15일은 대학원 210호 16일은 소강당이다. 모의재판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세미나 주제는 △국제법학회(15일)-인권을 이유로 타국의 주권개입 정당화가 △노동법학회(16일)-일하는 사람의 사회를 위하여(노동자 경험담) △사외과학회(17일)-사법권의 남용이 모

의 재판 주제는 △공법모의재판(20일)-신환일협정 비준에 관한 헌법 모의재판 △민사모의재판(19)-자동차 급발진과 제조물 책임 △형사모의재판(5일)-119와 비디오사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법대학생회 학술제 준비위원회 장운주(법·법학 3)은 "학회마다 단일한 주제로 묶이지 못하고 다른 주제를 채택한 것은 아쉽지만, 일련의 성과를 나타내는 자리인만큼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정학과 김창준교수 정년퇴임식

행정학과는 김창준교수의 정년퇴임식을 16일(목) T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한다. 이 날 퇴임식에는 학부 학생뿐 아니라 대학원 학생, 행정학과 동문교수들이 모두 참석한다.

또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선물증정식도 가진다. 이에 행정학과 학생회장 이상훈(3)은 "행정학과에서 처음 정년퇴임을 하는 교수님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영어과 일일호프 열려

영어과 학생회는 17일(금) 외대호프에서 예술계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안무와 춤을 맡아, 토크마스를 진행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한 손바레는

공작 음식을 제공한다. 일일호프를 개최한 영어과 학생회장 이영진(3)은 "외대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산악장비 전시회

용인배출터 후북관 앞과 서울배출터 학생회관 앞에서 실과 산악부 신입부원 모집을 위한 산악장비 전시회가 각각 8일(수)·9일(목)·9일(목)·10일(금) 열렸다.

정호정 기자

이 사람

농학박사를 준비한 언론 비평동료로 곳곳에 회장 백성준(상경·경명보)을 만나



“농학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를 농학을 잘 해 농학기간동안 많이 느끼고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학에 참여했다는 한에 두에 참여하면서 농학 다너는 것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농학박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농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동아리연회와 농학박사를 준비한 언론 비평동료로 곳곳에 회장 백성준(상경·경명보)은 이렇게 전했다.

올해 농학이 끝난 8월 말부터 농학박사를 준비해온 백군은 매년 되풀이되는 농학을 무척 아쉬워하며 "지난 농학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이번 농학 때에는 다른 것을 해아하는데 우리 농학 때부터 매년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돌아와야"라며 "지난 농학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못된 점은 교훈삼아 더 발전되는 농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백성준은 농학기간동안, 주요 내용은 농학기간설정, 농학의 흐름, 하루일정, 분반활동, 전체평가, 농학활동기담을 말했다. 이번 농학박사가 가지는 특징을 물어보자 "매년 백사를 만들어 왔지만 특히, 이번 백사의 특징은 마을지도, 마음의 상황들을 자세히 넣었다"라며 백군은 원주에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으로서 한문들은 농학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백군은 "농학은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연과 함께 말이죠. 농촌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며 농민들의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라고 전했다.

만들면서 어려운 점을 물어보자 "사실 어려움도 많이 없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더욱 친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백사는 전체동아리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에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백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더 조심스럽고 잘 만들어야겠다는 부담이 생겼다"고 결론짓고 솔직하게 말을 시켰다. 한 백군은 "이후 농학을 준비하는데 많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농학을 평가하고 준비하는 이런 후속작업들이 과학화나 각 단계를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은은 기자

구분	14일(토)	15일(토)	16일(일)	17일(월)	18일(월)	19일(월)
사울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용인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구분	14일(토)	15일(토)	16일(일)	17일(월)	18일(월)	19일(월)
이 문 권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후 복 권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복지정학급 수평결과 발표

“한살박이 민석이가 클 세상은 자유롭길”

원광대 자주대오 조작사건 관련 양말희씨를 만나

지난 7월 25일~27일 사이, 전북지역 대학생·졸업생 30여명이 전북도경찰청과 기무사(군인도 있었음)로 연행되었다. 죄명은 이적단체 가입, 결성 및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현재 이들은 두툽한 증거가 없어 전원 조사가 중단된 상태. 이들 중에는 캠퍼스 직장인, 심지어는 주부도 있어 경찰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주부 양말희씨(28, 원광대 외학반)를 만나보았다.



“잡혀가던 날이 아이 돌잔치날 아침이었어요. 이것저것 음식들을 준비하다 늦게 잠들었는데 아침 일곱시쯤 밖에서 큰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북도경찰청에서 나왔네’... 체포 영장도 없이 일단 서로 가지고 하길래 거의 수컷바람으로 뛰쳐 나왔죠 뭐. 저희 애야는 어찌나 당황했는지 오죽했으면 제 바지를 입고 나왔더니깐요. (웃음)”

이른바 ‘원광대 자주대오 재건’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양말희씨(28·주부, 원광대 외학반)씨는 의외로 여유로워 보였다. 9년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한 그녀는 지금은 학교앞에서 남편과 함께 게임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주부다. 열은 화창기,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감바지를 입은 그녀는 전형적인 ‘미시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한 살박이 아들 민석이가 어머지가 한 집안의 머느리기도한 양씨가 겪은 황당한 사건은 지난 7월 27일 아침, 전북도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시작된다.

“그 전날 저녁, 돌잔치에 술 과일을 사들고 집앞에 다다랐는데 어떤 아저씨가 짙은 유령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경찰서에 가보니 그 아저씨가 거기 있던군요. 며칠간 미련이 붙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죠”

황당한 일 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같이 연행된 윤 정선(29·주부, 원광대 88)씨는 ‘사회주의 혁명대오’의 총 책임자로, 양씨는 중앙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조선 귀경에선 뭘 물어보던가요?”

“문건을 내밀며 ‘이것 본 적 있지 않느냐’ 학습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다른 조직원을 말하라. 그런 식이었죠. 예전처럼 폭력을 쓴다거나 협박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일단 그들도 확실한 증거 없었으니 자살이 없었죠. 하지만 놀라왔던 건 지난 3년간 학교를 다니며(그녀는 98년 2월 학교를 졸업했다) 제가 했던 말, 작성했던 문서 등이 사전만 한 두께로 그곳에 있더라고요. 알고보니 프락치였을 한 학생이 한명 있었습니

다. 이 대목에서 양씨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는 학생이던가요?”

“알라다냐요. ‘누나, 누나’ 하며 저를 잘 따르곤 해서 애끼던 애였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였는데 아마 그 래서 그런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조사받고 풀려난 뒤 만났는데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양심선언 해 볼 것을 권유했는데 경찰쪽에서 압력을 넣었나봐요. 몸이 떨려왔어요. 한 인간을 ‘파벌’로까지 들고 갈 일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어내다니요. 그애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경찰쪽에서도 이미 알려졌으니 더 이상 ‘필요없는 프락치’ 정도도 생각할 거구요”

“조사 받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였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조사받고 풀려난 뒤 만났는데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양심선언 해 볼 것을 권유했는데 경찰쪽에서 압력을 넣었나봐요. 몸이 떨려왔어요. 한 인간을 ‘파벌’로까지 들고 갈 일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어내다니요

“답답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사 제가 그 일을 했다고하더라도 한밤에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한테 이런식으로 따졌더니 한바탕 하더라고요. ‘국가안보’를 위해서서 어쩔수 없더라고요”

“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보십니까?”

경찰의 ‘실적 올리기가 주 원안인 것 같아요. 수년간 전북지역에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늘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기 때 늘 터뜨리는 간헐한 사건 그 일종이라고 봐요”

“어떻게 금방 풀려났나요?”

“국가보법 관련 조작사건이 늘 그렇듯 안에서 이미 관을 짜 놓고 끼워 맞추려다보니 무리일 수 밖에요. 수사관들 끼리 서로 말도 맞지 않고 명확한 증거도 없고 하니 한 달전 조사 한번 더 받고는 잠정적으로, 또, 시민단체들의 항의도 한두차례, 연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는 등 전북 지역에서는 큰 뉴스거리였으니까요”

양씨는 그러나 풀려난 뒤에도 ‘조사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전한다.

“반대도 조사하는 공을꾸다 벌벌떨까 봐요. 또 아무래도 근처에 친척들도 많이 살고 하니 신경도 많이 쓰이구요. 또, 일단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사회에서의 인식은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린 하잖아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런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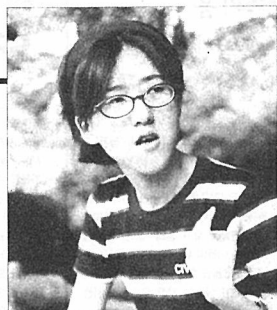
“아이를 키우다보니 장난감도 볼수록 기저귀 장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많이 사줘요. 하지만 볼수록 쓸모없는 노는 아이를 보면 가슴 서늘퍼지는게 저 아이 자라는 이생에서는 자유로운 생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 사상문제가 있어 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이 옳은가 따지고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죠”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안내 방송에 잠을 잤다.

“시민 여러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신고정신입니다.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나 없나 꼭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문득 그녀가 “다시는 저희같은 희생없이 없었으면 좋겠습니” 하고 함구어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반미구국헌장 조작사건에 연루되었던 원광대 부학생회장 양말희씨(가운데)가 4 유학생을 만나

“국민들은 진실에 귀를 기울인다”

“반미구국헌장”이 어떻게 전개되나

작년 여름을 할 후 5명의 단체 학생회장들이 한꺼번에 연행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적단체구국성’으로 이들을 연행했으나 혐의가 부족해 모두 풀려주었다. 이때부터 조작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을 했다. 지난 6월 7일 경찰에 의해 연행된 우리학교 20여명의 전·현직 학생회장 부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학생회 활동을 그만 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를 존재하지 않은 ‘반미구국헌장’의 조직원이라고 간주하고 한양대 내에서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고 일부 조직원은 군 입대 후에도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의식과 작전을 받았다고 조작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추측성 발언이었고 또 한사람의 진술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이밀며 인정하고 했다.

“이번처럼 이적구경정권들이 후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들이 사회주의에 관한 책을 읽었다는 것뿐이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나의 진술’이 아닌 ‘누구, 누구의 진술에 따르면’이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마치 나의 진술이 나의 행방인 것처럼 말이다. 재판장도 이런 상황에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보석판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 대규모 조작사건과 함께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공안탄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정권이 ‘국가보안법 철폐’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권은 조작사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는 이적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이것은 보수세력들로부터 ‘철책’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대규모 조작사건 또한 배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정권이 실지리를 잃었기 때문에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조작사건으로 보수세력의 힘을 빌리고 국민의 여론을 조종하려도 이끌려고 하지만 보수세력은 국민의 국민들만큼은 진상에 귀를 기울인다.

이제 더 이상 조작사건이 공안정착의 승전부부를 결정하는 최대 실책이라는 것이 놀라워 믿음이 아니다.

장서준 기자

우혜나기자

국가보안법·양심수 전원석방·정치수배 해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물쇠를 끊어버리자

얼마전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요구하며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수배자가 된 사람들이 3백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인권의 사각지대, 민주주의의 불모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운동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안사건 조작의 역사

정권 흔들리면 “한 건 만들어 볼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작사건을 만드는 것은 해방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대선때는 그동안 여당이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북풍’을 이용했음이 밝혀져 국민을 당혹스럽게 했다. 조작사건의 특징은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검사나 판사가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판사의 경우 공안단국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거의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의 대부분 불법 연행과 구금으로 시작되어 혐의자 가족의 구명 운동이나, 법정구속시한 파위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조작사건으로 연행된 사람의 경우 약되어 1주일에서 120일까지 감금당할지 무죄판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기수 가족협의회는 72년 7·4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파간첩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공안단국도 인

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200여명 가량의 공안단국 관련 장기수 가운데 65%정도는 모진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혐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안사건을 조작해 내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때나 국제사회의 개입을 사상이 유입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행권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일선 수사관이 포상금이나 진급에 연연해 사건을 조작해 내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조작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창의 증거인정 여부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던 ‘영남위원의’ 사건이다. 92년 영남위원회를 조직해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이적표 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작년 7월 22일

민중노총 방선수씨 등을 체포한 것에 이어 당시 울산시 동구청장이었던 김창의에게 당시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해가며 사건을 확대시켰으나 제출한 디스켓 자료에서 기록남편과 파일 확장자 등에서 파일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발견돼 검찰 스스로가 혐의를 낮추려 하는 등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86년 김성만, 양동호 씨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제미유학성’ 사건은 당시 급증하던 유학생들이 국내에서만 배우던 사상과는 다른 사상을 배워와 국내에 유포시킨다는 공안단국의 우려에 따라 해외 유학생에 자국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으로 추정된다. 당시 김성만 씨는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했다. 그러나 후에 김씨는 몇십일에 걸친 고문을 받았다고 말하고 유학 중 독일에서 북한 사람을 한 번 만났

고 밝혀 이 사건 또한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다.

조총련 역시 조작사건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80년 일 본에서 조총련의 사주를 받았다는 이른 바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각각 10년과 15년 형을 선고 받은 신춘석씨와 신귀영 씨이다. 그러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신춘석씨는 “신수영이라는 조총련 친척은 만난 적도 없고 다만 50여일에 걸친 물고문, 전기고문 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히고 있다.

92년 벌어진 해방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는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북한 고위관 리와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말발이 안기부에서 흘러나와 당시 민지당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 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류재석 기자



공안사건 조작은 무고한 시민들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만들었다. 사건은 공안사건에 연루돼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양심수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증거없는 사건

김창 김영환이 국정원으로 연행되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의아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김정일 정권타도를 외치며 조선일보 조간제 기자의 도움으로 국정원과 협조하여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까지 없어서 걱정하던 일은 터지고야 말았다.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간첩단 사건이 국회개원 하루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우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지금 인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요구가 높으며 천주교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미사를 진행 하고 수백개의 단체들이 국가보안법개폐 면을 앞이 실현을 벌이기 위한 조직으로 묶이고 있다. 또한 정권에서도 인권의 대명사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만작이나나 국가보안법개폐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하지만 50여년동안 외세와 독재에 빌붙어 국가보안법을 정가의 보도 마냥 휘둘러온 세력으로서의 일말의 불안이나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개폐는 누가 날이 갈수록 혐소되고 있었고 급기야 간첩단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일을 모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과연 얼마만큼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황상에서 사슬이 있는 사건발표의 핵심을 파악해야만 한다. 매우 논리적인 듯 하나 법적인 자료로서는 엉망인 것이 사건 발표문이다.

무엇보다 물증이 없다. 거의 유일하게 물증이라 할 수 있는 드보르카 변호인 입회도 없이 국정원이 단독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증거가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김영환의 진술에 의거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환이 외국에 있을 때부터 김창 일장권타도를 주장하고 남한 민족민주 운동전열을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는 것을 보아왔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밝히듯이 열간조선 조간제 기자의 도움으로 얼마전 귀

국정이 국정원과 만나서 사이다. 상식으로 이 사람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다. 더구나 민족당 하부단위라고 하는 영남위원회조자 임청남 도청자로, 디스켓자료들이 모두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당사건의 증거들은 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대한 흥취라는 사람의 개인컴퓨터에서 지하당 조직표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김영환이 전혀 없이 국정원으로 부터 공소보류라는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발표문의 허술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족당의 간첩들은 코메디 영화 주인공 리얼진보다 못한 수준이다. 지하당 핵심멤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각자리에 2를 빼는 식의 허술한 암호로 처리하는 것에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하당 핵심멤버라는 사람이 주 민중노동당을 때는 일을 직접 하여 조직상을 노출시키는 아이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국정원이 혁명목숨에게 악물을 먹여서 심문을 진행했다는 사실앞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50여년동안 한국사회는 간첩이라는 말에도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사회였다. 전방반북투쟁을 넘겨주었다며 국가기밀누설죄를 적용해 15년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매우 특별한 경우만은 아니기에 누구나 용공이적 혐의, 간첩혐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제나 정권의 위기가 도래할 때나 민중의 자주적 진을 가속화할 때에 한국사회에서는 간첩단 사건이 터지곤 했다. 지금 북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전략이 파탄나고 정권을 통한 혁명전략 또한 파탄나고 속에서 민중의 자주적운동은 대단결의 기운을 높이며 결집하고 있다. 남북이 교류, 협력, 화해, 단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수 있는 세력은 점점 밀려나고 있다.

박진규

(간첩단조작음모본체, 신공안정국동료, 국가보안법 판정철폐를 위한 서울대국보법철폐위원회, 사회대 학생회장)

한미투자협정은 미국에의한경제침탈의다른이름뿐입니다.

Buy Korea!

한국을 뉘아가세요.
한미투자협정은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마음대로 유린할수 있습니다.
또 투자만 한다면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특권도 주어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있나요?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상 품 : 한국
상품품목 : 국내기업, 금융, 영화 등
단, 자격제한 : 미국만



생 활 시 평

세계화=한자화(?)

“파라라리리리”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바스파 떠나려는 자화할을 붙잡아 왔다. 후후 하고 한숨을 내쉬며 훌쩍 머리를 쓸어올리는데 문득 자화할의 표정에 눈이 갔다. 언제부터인가 ‘동대문운동장’이란 한글 말에 덧붙여 한자가 표기되어 있다. 같은 글자를 한글로 표기하면 혼란을 주기 때문인 ‘정확한’ 뜻글자 한자화도 표기해 놓은 것이라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도 해당이 되는 걸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상대를 만났고, 두꺼운 육체를 연구하여 끼고 쥔 곁을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신배. “내년부터 취업시험에 한자과목이 늘어날래. 지금부터 조금씩 해둬야지” 말을 더 늘어보니 국가차원에서 ‘한자교육’ 점진적으로 ‘한자화’ 관련이 애매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다...” 등등.

문득 외삼촌은 건 “우리의 생활에 맞는 관건이었는데 가 하는가. 한글을 위주로 쓰는 민족이었던 어찌한 한자라는 한글로 풀어 사하고 부속부터 한자문화까지 이어지는 뿌리에 있어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정치가 한 문하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이 세계 유산으로 1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매년 한글을 기리기 위해 ‘세계한글상’을 시상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별로 없다. 그토록 ‘세계화’를 부르짖는 국가이면서 언어정책만큼은 세계화 추세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대목이다.

정서문 기자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진단

인터넷 게시판, 이게 아닌데...

일부 이용자들의 욕설, 비방글 도배로 문제 아이디 등록제로 책임있는 비판의 장 돼야

학교 홈페이지 교사 게시판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무책임성으로 게시판이 어지럽혀 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교사게시판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원필자 주

우리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2000년 넘었다. 비록 문제점이 발생해 일단 보류 상태인 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수강신청도 실시했고, 가상대학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교사게시판은 학내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시판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대 비판을 위한 제안’란의 내용을 보면 건물 신축, 시설 불편 문제, 교수 임용 문제 등 외대의 삶과 태도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의 의견들이 매일같이 올라온다.

하지만 최근 이 게시판상의 일부 무책임한 비방글, 욕설 등 폭력적인 언어 사용이 큰 문제시되고 있다.

“XXXXX같은 놈아! 나네끼리 다 해먹어라” 등의 욕설, 개인에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는 비방글들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근거리에는 비난으로 우리학교 학생의 명예를 훼손시킨 타대생이 사파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길연정(통영·일반여 3)은, “이런 비방글들을 올리는 사람은 극히 일하다. 몇몇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학교 발전을 논의해야 하는 게시판이 어지럽혀진다는 점이 안타깝다.” 라고 말한다.

상황이 이러 피자 학교측은 ‘인터넷 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비서실장 장영환씨는, “그간 뚜렷한 관리자가 없어 보기에 ‘돌 심하다’ 싶은 글은 학교 차원에서 삭제해 줬었다. 올바른 정신문화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라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한 많은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해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비르게 이용자는 큰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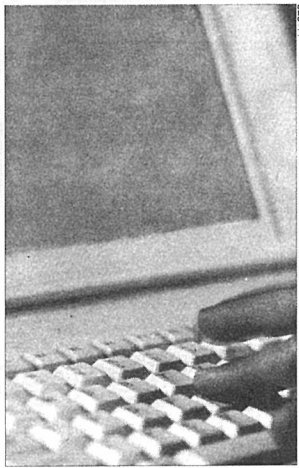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는 아이디 등록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연세대, 경희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학번을 이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시켰을 때만 게시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등록제 아이디만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피자 통신의 경우 비방글이 오는 정도가 훨씬 적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다. 하이텔 한국외대동호회 대표이사 박석홍(서울·영여 3)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아이디 제도가 도입되면 훨씬 책임성 있는 비판,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글을 삭제할 경우는 삼엄이던 글, 음란글, 개인 비방글에 한해 삭제하는 ‘게시판 운영규칙’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글 또한 저작권이니만큼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 명확한 기준에 통째로 올리는 선기로 밝힌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아이디 등록제, 게시판 운영세칙 확립 등 운영방법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비판정신 확립에 있다.

“너 이상 모교발전을 위한 제안을 쓰는 이 신성한 공간이 함박미의 불리전들의 낙서와 공간이 피도둑 발치말아야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 이 공간은 외대인들의 피와 땀과 눈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부 이용자들이 욕설·비방글들을 올리는 문제가 되고 있다.



▲ 게시판에 오른 글 중 일부. 이처럼 명확한 근거제시와 바른 언어사용은 학내 건전한 토론 문화 확립에 도움을 준다.

물과 공명의 진정 소중한 장이여야하기 때문이다” 한 졸업생은 게시판에 올린 이 글은 “자유로운 논의의 장”으로서의 게시판의 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

정서문 기자

가분만한 사회과학서점 소개

순수와 지성을 사러가자

95년, 사라진 서울배우터 앞 죽림굴방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사회·과학서점으로서 외대인들의 시대 정신이자 건전한 정신 기풍이었던 죽림굴방은 그렇게 외대인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갔다. ‘내학’과 진지한 토론 문화가 없다고 말해지는 요즘 외대인들이 찾아온 한 서점을 소개해 본다.

연대 굴다리를 지나면 조그마한 골목이 나온다. 그 골목 안쪽에는 예전에 도로변에 있었던 ‘오늘의 책’ 서점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변에 있던 이 서점은 건물주인의 덕에 높은 임대료 요구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었다. 대학가에 서점이 사라지고 오락·함흥으로 흐르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오늘의 책’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한 연대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 골목으로 이식했고, 그 이후로 서점을 조합 형태로 운영하였다. ‘오늘의 책’ 서점의 중심은 인문·사회와 과학서적이다. 기초적인 읽는서부터 열화·음반·평론까지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책들을 구비해 놓고 있다. 1달에 1번 무료 소식지로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조그마한 서점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소파를 마련해 놓았고, 사라져가는 인문서점의 판매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대로 올라가는 길 골목 사이에는 85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인문·사회서점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장백서원이 있다. 35여개의 구호와 구성으로 되어있는 장백서원은 한 개의 것이 아니었다. 고대학우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살려낸 장백서원 역시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른 서점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권해주고 학생들이 고른 책을 설명해주는 집사가 역할도 해준다. 97년도에 이직 표현을 관매 혐의로 구속·직접도 장백서원을 지키고 계신 김용준(35)씨는 서원이 책을 파는 역할뿐 아니라 사람과 책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장백서원은 영와, 소식지발전팀, 독서부의 소모임을 통해 만남과 문화의 장을 주선하고 있다.

“대학이 순수와 지성이라는 말은 이제 거짓이다. 그러한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하지만, 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런 의미와 기대를 주고 싶다”라고 말한 김용준씨는 아직도 건전한 지성을 믿고 있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만남이 있는 서점으로 달려가보자.

가분만한 사회과학 서점

- 장백서원(고려대 앞 922-6238)
- 오늘의 책(연세대 앞 322-6334)
- 논쟁(성균관대 앞 765-3107)
- 풀무집(성균관대 앞 745-8891)

박준표기자



우 리 들 의 소 식

보도블럭→거름들

“부끄러워” 씨 놓고 보니 생긴 것부터가 맘에 들지 않군요. 우리가 굳이 ‘걸’을 쓰지 않고 ‘도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저 나라는 걸”을 ‘찾길’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도’ ‘인도’ 등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는 걸어다니는 길이니 ‘거닐길’이고 ‘블랙’은 다들아닌 ‘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들 연구회>

스투와 함께 하는 ‘나두아 만화작가’...

“조로로 변신! 하나, 둘, 셋, 넷, 얍!”

모두 공금했는게아!
과연 힘이붙어 개겡조로가 되는 순간이 어떨까?
하늘엔 태양이 번치고, 땅위엔 안개가 깔리고,
아, 나는 다시 태어나는게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아, 아-대한민국!
아, 아-나의 조국-!
보아라, 저 늙은한 개겡의 모습!
지국충- 지국충- 어서와~!



대딩이 꾸미는 [시민 쾌걸] 이야기 공모!

대학생활 중에 겪었던, 돈도모두 못한 소재를 고풍합니다.
선정된 소재는 대딩의 우상 시민 쾌걸이 등장하는 가상현실 만화로 구성해 드림.
선정된 소재의 주인공에게는 투명한 선포를 드립니다.
동아리에서 생긴 일, 알바 이야기, 군대 괴담, 미팅 전성 등등 재미있고, 부끄럽고, 소꿉친구들이 이야기들이면 보내주세요!

●공모방법

1. www.sports today.co.kr로 들어오셔서 행사게시판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나만의 독특한 소재를 바꾸어 입력! (A4지 1장 이내)
3. 그리고 기어하시라, 공모마감은 9월 30일까지!

●행사내용

- 선정된 소재는 시민쾌걸의 작가 김태성이 만화로 구성, 우리 작품을 스포츠투데이 부지에 연재하고 기타 작품은 라디오로이드로 제작하여 전국대학에 무료 배포 예정.
- 소재가 채택된 4명에게는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 가득 들어있는 행운의 배낭을 드립니다!

●속보

10월말, 대학취업을 가리켜!!
제2회 신크리드(스포츠투데이) 취업대회
-스타크래프트 대항전-



*구독신청: 2002-0111

이 책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론에게 국민은 없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원제: Profit over People: Neoliberalism and Global Order)는 노암 촘스키(Nam Chomsky)의 새로운 평론 모음집이다. 미국정부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신랄하게 꼬집으며 신산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촘스키가 이번 책에서는 세계 무역 기구(WTO),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다자간투자협정(MATI) 등 전세계 만물을 어떻게 착취하고 비탄에 빠뜨리고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목표로 하는 나라의 경제를 약탈하기 쉽게 구조조정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나라의 정치경제를 철저히 비판하는 시나리오인 악명 높은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이들

신자유주의 정책은 합당한 나라에 강요된 공식적인 주장과 실제로 행해지는 시장경제 논리로 적용된다.

이러한 시장원리는 '당신에게는 시장원리가 적절하다. 그러나 방해하고 즉각적인 이익이 없다면 우리에겐 무관하다'는 식으로 적용되었다. 이로써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천원짜리 제국주의로 실패한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부의 확산과 자본주의와 생활 수준 향상을 보장할 듯 보였으나, 결과는 미국 투자자와 이들에게 협조한 부자들의 이익을 증대시켰을 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극심한 손실이 장기되었으며,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초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평등마저도 위태롭게 되었다.

촘스키는 자유시장만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라 우리를 세뇌시키는 온갖 찬송들의 진실을 밝힌다.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론의 주역들에게 국민은 없다. 다만 그들의 지배와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자유방임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역할이 제한되는 무능한 기관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대 자본주의의 구성원이 아니라, 기업에게 자원을 이기지 않으며, 기업의 이익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부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뒷맛이 개운치 않고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들은 WTO, IMF, NAFTA, MATI 등을 통한 은밀한 공작으로 보다 쉽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책은 마르크스의 '당신보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것처럼 행동한다.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결국 당신의 몫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결론을 우리에게 던지며 끝을 맺는다. 이 책은 우리에게 촘스키 강주전(철학과 철학, 정치) 씨가 반역을 하기도 했다.

작을 만신

23회 모의유엔 총회개회

제 23회 모의 유엔총회(The 23rd Model U.N. General Assembly)가 오는 17일(금) 오후 2시에 서울대여수 국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모의 유엔총회의 의제는 '12세기 시민사회건설을 위한 NGO(Nine Government Organization)의 위상과 역할'이다. 이번 의제는 UN에서 NGO의 위상과 역할, 국제 개발 NGO, 국내 개발 NGO의 활동, 92년부터 8개의 세계회의에 참가한 NGO의 활동, 제23회 모의 유엔총회에서의 역할, 정부와의 관계, 논의의 큰 3가지로 나뉘어 약 5시간동안 진행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맞는 수준향상과 외국대 학생들과의 친화적인 토론은 통해 사고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 23회 모의 유엔총회부터 외국대학의 학부원생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

올해 23차 총회에는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학원 5명과 우리학교 학생 10명이 대표위원으로 참가한다.

국제관계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열어

오는 16일(목) 국제관계연구회가 '비·일 신빙위협지침(신 가이도라인)의 영향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여수 국제관 세미나실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일의 신빙위협지침과 동북아의 안보'와 '주변국사태와 한반도'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심포지엄을 준비한 국제관계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장 전성원(통안) 이사 3명은 '비·일의 신빙위협지침은 동북아 지역의 과도한 군사경쟁과 패권주의 등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구축 노력에 영향을 우려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신빙위협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WTO 무엇이 문제인가

WTO의 지구화 구상

(98년 10월 협상에서 철수한 프랑스 덕분에 이뤄진) 다자간투자협정(MATI)에 맞선 승리에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있다. 각국 정부들은 왜 이 지점에서 막을 내릴까? WTO의 경우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유럽의 정당을 후회시키면서 국가주권을 발가벗기는 경향을 목도하고 있다.

브리튼/국제상공회의회 상무차장은 농업의 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이는 결국 농촌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가난한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의 식량안보에 대한 통제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엇이든 지적재산권(TRIPS)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면서 생물학에 대한 특허까지 포함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또한 시애틀에서의 논의를 가리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 덜 알려진 것으로 서비스와 약에 관한 일반협정(GATS)도 현재 의제에 올라 있다. 이 협정은 앞서 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용적 존재'와 '자연적 인간적 이동'을 포함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해외투자에 개방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 우리 자신의 기업들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나 정부들은 자신들이 겪게 될 우리의 상상해 대 좌표에서도 생각해 있는 걸까?

서비스 부문 모두가 WTO를 통해 최대의 이익보조자를 이끌어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분야가 미국의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지적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나 유럽의 보건 부문은 자유화의 특별 타겟으로 선정되었다. 서비스산업협정은 이로써 '미국 기업이 해외 의료 시장으로의 확대 기회를 얻어내는 협상에서 많은 전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서비스산업협정은 또한 '시장 접근'과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유를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한 협정인 WTO에서 의제에 올라 조인할 경우 우리는 유럽의 공공 의료 체계의 입맞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이 정부 계약에 입찰할 수 있도록 의료 부문이 WTO 공공조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조항 모두를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한 협정인 WTO에서 의제에 올라 조인할 경우 우리는 유럽의 공공 의료 체계의 입맞춤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부들은 위에 언급한 이미 승인의 의제 외에도 많은 부가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전적 요구인 단순 산업 관세의 철폐에 착수하였다. 결국 관료적이고 고루한 관세 절차들 '조화시키고 현대화, 단순화'(이 의 본뜻은 관료의 검사와 관료 줄이는 것이다) 함을 의미하는 '교역 촉진'이 있게 된다. 이



다음에 오는 것은 어떤 국가간 국민총생산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조달이다. 이 시장들은 내국인 대우라는 신상한 원칙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급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다자간투자협정의 저력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한 협정은 잊혀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WTO는 환경 문제를 다뤄야 한다. 기후변화, 오존층, 생물다양성, 독성 폐기물, 멸종 위기 생물 등에 관한 다자간투자협정(MATI)의 내용과 WTO의 규정 사이에 불일치 존재하고 때로는 충돌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들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WTO에서 이들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지거나 해결될 것인가?

지금까지 WTO의 회고록들이 환경이나 공공 의료에 관련된 논쟁을 어느 정도 신경쓰지 않고 결정하는 것에 비하면 환경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감동적이지 않다. 환경 문제에서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빙위협지침(FPA)이다. 이 협정은 신빙위협지침의 교역과 신빙 개발에 대한 모든 장벽과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신빙위협지침에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이는 자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들 국가는 현재보다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WTO에 상설 대표관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몇몇 국가들은 대외관계를 함께 쓰고 있다. 남반구의 큰 나라들조차도 광범위한 다자간 무역에 관해 동시성 이루어지는 복잡한 협상에 관여할 책임의 수가 부족하다. 사실 '자'(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는 남반구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고도의 전문 인력들을 통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자랑하다. 국가주권을 우려하는 우리의 국가 관리자들은 '적당히' 모든 상정이 관리되고 있다고 답하면서 거를 떨친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에서 정말 필요로 할 것

은 우리 정부들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떠나서 열거하지 보여주는 일종의 상세한 '투쟁성 자료'이다. 우리의 정부들은 자국 국민의 모든 이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다. 정부 고위 자들이, 미래는 어떠한가? 공공 의료인가? 농민인가? 호르몬 쇠고기인가? 신빙위협지침인가? 시장자유화인가? 아니면 '바나나 결정'으로 이어지는 급진적이며 비합리적 준수인가? 이 지구화된 세계에서,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각국 정부들은 신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드의 전체 협정이 3년 안에 타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이 협정 서두름이 답은 간단하다.

'급속하게 진화하는 기업 현실과 여기서 제기되는 요구와 보증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자간 규약협정이 전지구적 시장에서의 변화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기업의 요구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체해버린다. 2003년 1월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한반도인 이익 재산'과 '상생'이라는 이러한 전망은 아직까지는 대중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초국적기업들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통제력을 버리고 WTO의 강제규정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대중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쟁이 절실할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이 조직(WTO)에 대한 전면적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WTO와 그것의 모인한 야심이 현재 미치고 있는, 그리고 향후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경우 주권국가들은 말하거나 행동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프롬 데일로마르코: 99/7 수장 조지 지만게상 위원회는 모두 실지 못했습니다. <http://www.monde-diplomatie.fr>로 들어가면 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부

왔다갔다 정치인

- ... 평소 DX(화살표)를 따라 하며 춤을 추는 내는 오카기(가)를 장하는 사람을 흉모하던 크나를자 전국 DX(화살표)를 열었다.
- 3월 - 실례와 카에서 (화살표)를 따라다닌는게 자업이다. 발놀림도 빠르다
- 2월 - 기교와 기업인(이것 저것 잘 다니는 척 한다. 그러나 외면한 중시하다 실패한다)
- 1월 - 식상하지만 정치인이다. (어릴 수 없다. 이들보다 왔다갔다 잡하는 사람은 없다)

(석)

- ... 또 터진 간담만 사. 왜 되었을까요?
- ① 국민들이 정권을 분해해 빠져나갈 줄 파수가 필요했다.
- ② 대통령들이 정권을 완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곧 선거가 다가오므로 여론이 등극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한다.

정당-셋 대(원거나 말거나) (정)



- ... 내가 어렸을 때 우리집에는 가정부 아줌마가 있었다. 빨래는 항상 일도 잘 못했지만 예전에 있던 아줌마처럼 물건을 훔치는 일이 없어 안심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있던 아줌마가 찾아와 월급을 적게 받아도 되니 일을 다시 하게 해 달라고 했다. 다음날 일하는 내게 일 못하는 아줌마를 내보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해 달라고 관선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바순준이 복귀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 어떻게 가정부 아줌마가 내 인건까지 훔쳐 갔던 아줌마가 되잖아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

- ... 요즘 국가기관에 빈번한 도청·감청 등 인권·사생활 침해가 큰 문제로 되고 있다.
- 도대체 '국민의 정부'야?
- '정부의 국민'이야? 해답에는 군...

(윤)

정부의 국민

비둘기철판

왕산 별

○ 일입니다

- 서대와 떠나는 가을여행 이번 12대 민족 사태에서는 각과 학생회장들과 서대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해: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 곳: 강원도 인제 내린천 각과 학생회장님들 문의 하세요.
- (12대 민족 사태)
- 사람 구합니다.

작곡, 악기, 노래분야의 실력자 및 봉사자를 찾습니다.

해: 16일(목) 늦은 6시
곳: 학생회관 307호

(외박기다)

- 해 18회 누리에 사진 정기전시회
- 해: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 곳: 학생회관 전시실
- 많이 보러와 오세요.
- (누리에)
- 드디어 사람의 수화교실 기초반 개강합니다.
- 해: 16일(목) 늦은 5시 30분
- 곳: 공대 203호

많이 많이 오세요.

(순발 사랑화)

- Log out & N.S.M
- 사정초유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 해: 16일(목) 늦은 5시
- 곳: 노천극장
- (Log out & N.S.M)
- 그림사랑 네 번째 정기예매이전, 상영됩니다.
- 해: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1회 14시 30분, 2회 3시 30분
- 곳: 후북관 소극장
- 입장료: 1000원
- 문: 구내전화 4414
- (그림사랑)

이 문 별

○ 일입니다

- 법학과 졸업예정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졸업앨범 추가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들어온걸 정말 축하해 앞으로 잘보자.

(305호는 사는 이)

- 산업공학과 모교자입니다.
- 해: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 학부제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우리 많이 가서 신나게 놀아주세요.
- (산업공학과 학생회장 박진현)

SMART 1, 2권입니다.

연락처는 010-427-4274입니다.

(공부하는 사)

- 중등과 동문회 합니다.
- 해: 17일(금) 늦은 5시
- 곳: 본수대
- (중등과 동문회)
- 행정학과 김창준교수님 퇴임식 있습니다.
- 해: 16일(목) 늦은 7시
- 곳: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행정학과 학생회)
- GRE 같이 공부할 분을 찾습니다. 3-4명 정도면 좋겠어요.
- 교재는 BKG BOOK, WORD

국·사회과학관 401호

(제1대 해방 베트남아와 학생회)

- 마포고 동문회 있습니다.
- 해: 16일(목) 늦은 6시
- 곳: 노인정
- (마포고 동문회)
- 상문·은광에서 개강 동문회가 있습니다. 21일(화) 늦은 5시 30분에 노인정에서 꼭 만납시다.
- (은광·상문 개강 동문회)

○ 찾습니다

- 반지를 찾습니다. 4층 열람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기문에 분홍빛 장식이 들어있는 금반지(아니 커튼)입니다. 제게서 무척 소중한 것이니 꼭 돌려주세요.

연락처: 010-427-3725

(반지 잃어버린 사람)

검은색 쓰리레는 가방을 찾습니다.

지난 달 30일 12시 30분 경에 카페에서 나온 사이에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방을 갖고 계신 분은 1층 경비실에 맡겨 주세요.

(가방 잃어버린 사람)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서평 ·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읽고

'하루'라는 굴레를 벗어나

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서인지 '오늘'이 나에게 공으로 누군가가 준 하루인가 같다. 늦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뒤늦게 일어나서 편을 잡았다. '오늘'은 정말 공짜인가. 아님 귀한 보물인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개강이 그야말로 내일모레로 다가왔다. 방학이래도 아르바이트 다 학업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오늘은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게으름으로 이 주말만은 알아버린 책을 천천히 되새김질해 보련다.

한때 (사)주인권을 계속해서 몇 달에 걸쳐 읽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를 한바탕 '구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나에게 꽤나 인상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서점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은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을 친구에게 사주겠다고 말할 땐의 때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관념적(구보씨는 자신의 생각을 어떤 의식을 토해내듯

그리고 정열적으로 썼다.), 이념적(당시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이념이념이 흐른 뒤의 한국사회를 사는 지식인 노동자로서 그는 당시의 사회에 회의를 품은 듯 싶다. 아마도 월남전에 그 곳에서 받았던 의식교육이랄까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이런 부분은 책 곳곳에 나온다.) 그리고 너무나 소설적(가상의 인물 구보를 내세워 작자의 자신의 생각을 주물럭 거리는 것은 너무나 소설적이다.)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을 단어로 말하자면 이렇다.

이 책은 재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구보씨는 소설가의 하루를 그려놓은 것이지만 결코 단 하루가 아니라 하루의 연속, 즉 인생을 펼쳐놓은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970년의 어느 날로부터 1972년까지의 어느 날까지. 구보씨는 한국전쟁때 월남한 삼남대 중반의 월남비로 남자사 문예모임의 심사자로, 동료 문인의 출판기념회 참석차로 그리고 집필활동으로 하루 하루 일지를 세우는 것을 지상생활의 과제로 삼은 삶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일지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지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소설가 구보씨는 진정 소설가이다.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그는 그날 그날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보아도 인물을 보아도 패자가 된 건물을 보아도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시상이 동에서 그대 마구 언어적 사물을 부린다. '요아! 요아!'

그가 책 곳곳에서 내뿜는 재밌는 표현이 '신기함'이라는 것이다. 현실의 답답한 혹은 복잡한 또는 어중 어중

이해관계의 얽힘을 바라치면 그는 그렇게 내뿜는 것이다. '예이, 신기함!'

하지만 구보씨 역시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에 둘러쳐져서 하루하루 반복을 할 뿐 더 나은 삶을 꾸리지 못한다. 아마도 이러한 것을 작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가고 싶었던 집에서 스님과 청담을 나누는 것을 꿈으로 승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어찌고 변화가 없으니 따라서 발전도 없겠지. 아들이 꿈에서라도..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를 읽으면서 단지 소설속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 즉 하루라는 시간을 그리고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 인생을 되돌아 보았다.

내일 인생은 하루의 연속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존재하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으니 말이다. 한시간 한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일년이 되고 일년이 쌓여서 인생이 되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 또 이래야만 내일이 있다고 개를 꾸는 나와 같은 중생들에게 따끔한 충고가 될 수 있을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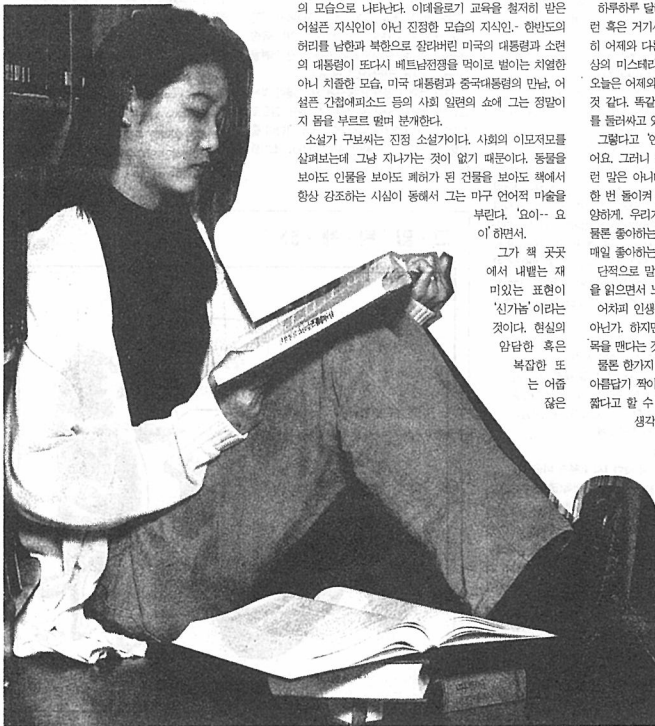
하루하루 달리 지나가는 듯한 하루가 어찌보면 그저 그런 혹은 거기서 거기인 하루가 아닐까 싶다. 오늘은 분명히 어제와 다른데 신문은 보면 알 수 있듯이(어제 신문상의 미스테리가 오늘 신문에서는 풀렸으니 절대적으로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그렇다고 인생은 어쩌고 하루하루 예측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어서 삶을 즐기세요. 혹은 소비하시요.' 이런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변화를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삶을 좀 더 알리게. 우리가 매일 다른 음식을 먹기 원하는 것처럼, 매일 좋아하는 음식은 매일 먹고 싶지만, 솔직히 어떻게 매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어찌 인생은 레일상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인가. 하지만 그 어느 한가지(공부, 연애, 출세 등)에 '목표'를 정하는 것 좀 어려웠지 않은가. 이 나이에, 돌본 한가지 일에 자신의 열정을 다해 매달리는 모습은 아름답기 짝이 없다. 인생은 다 산 호호백백 할아버지나 젊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삶을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 생각만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하루하루 똑같은 모습의 인생에, 무기력한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만큼 좋은 것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루라는 것은 그저 보아서는 인생이라는 울타리 속에 둘러싸여서 삶을 방치하지 말고 어쩌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인생이라면 다양하게 삶을 즐기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율리우스의 울타리를 치지 말고 말이다.

이대열
(법·법학 3)



한글에 관심 가져서 부디, 저의 지도를 들어주시요. 이책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반도의 민족은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부당한 헌신 앞에 침묵은 전신을 위협합니다. 제발, 인간의 자유를 저버리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해주세요. 상부의 성지와 성인의 이름으로. 연명. 투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에 참여한 천주교정의구원전국사제단 신부들-

정호정 기자

영화평 ·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를 보고 나서..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은 없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열일곱살 때 더 이상 불안해 하지 말라는 위안 섞인 말로 들었다. 그러나 영화는 시작부터 암울하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멜로드라마의 거장 대릴러나 서크의 '청교도' 하라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반주하여 파스텔로 색으로 만든 또 다른 멜로드라마이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다. 찰스보다 2살은 훨씬 많은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그보다 2살은 훨씬 어린 아버지는 어린 남자와의 사랑이다. 영화의 첫장면부터 끝장면까지 관객들에게 전해준 아니 의도적으로 감정을 이끌어 내지 않는다는 듯이 영화는 가깝게 와 닿지 않는 이상한 멜로드라마. 배우들의 시선은 항상 영혼처럼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듯 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마치 지옥처럼 어둡고 삭막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과 나이를 뛰어넘은 순수한 사랑 같았지만 모든 것이 재제와 피지배자의 관계처럼 항상 긴장되어 있고 불안했다.

영화는 내부의 외부의 갈등이 존재한다. 둘로 나누어 처음엔 외부의 갈등 즉 이 남자와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외부의 이들이 문제를 갖는 갈등이 나오고, 후반부엔 외부의 갈등은 사라진 대신 내부의 갈등 즉 이 두 남녀 간에 문제가 갈등으로 나타난다. 외부와의 갈등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이미 집안이 가난이 그들의 결국과 나이를 뛰어넘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끝까지 사선 정도는 아니다.

이 영화가 특이한 인종차별 주의를 피고자하는 의도를 느끼고도 남을 정도는 아니었다. 내부와의 갈등에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영화의 여자주인공인 예시는 영화내에서 취향 같 은 인물로 보여졌지만 후반부엔 그녀 또한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의 표현으로 이 영화는 몇 개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나오는 배우들 모두가 시선이 불안정하며 행동 또한 절제되어 부자연스럽다. 관

객이 배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배우가 관객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같다. 인물들이 몸통이나 청초(청초)에 항상 끼어 있어 배틀러인 사회 의식이나 각종 편견에 억압되고 갇혀진 그들의 심상상을 그려낸다. 유난히 계단(소외당하는)과 소외시키는 계단을 극단적으로 구별시킬 수 있는 서문장(지)이 많이 나오며 인물과 인물사이에 청정한 모자라 인물의 얼굴이 청정한 그림자를 뒤집어 씌운다. 바깥에 있기 보단 항상 갇혀진 내부에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감금과 소외의 이미지를 아주 잘 드러낸다. 이 영화가 의도하는 바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 또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주를 이루는 음악은 아랍 음악이다. 그것도 명확한 어떤 음악이 아닌 조금은 높고 거친 사운드로 또 하나의 소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영화에서 아랍음악을 주된 음악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꽤 특이한 것은 기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화의 테마는 아니나 해도 '외로움'이다. 이 영화는 바로 인간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소외와 애도(애도)의 이중주다.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영화도 볼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파스텔과 무용수들 한 방 빛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종과 나이를 뛰어넘은 순수한 사랑을 하나보다 살타니 이제 병이 들어 누워 있는 남자 주인공을 데려와 보며 예시는 울음을 터뜨린다. 여기서 문제는 이 여자의 울음이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만나 있었던 자기 인생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서 느끼는 억울함의 울음이라는 점이다.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을 맺었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말이다.

이혜경
(사·미디어 4)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학년도 수시모집

2000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I. TOEFL, TOEIC, TEPS성적우수자 특별전형				II.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서울캠퍼스)				(충남캠퍼스)				1. 모집인원			
대 학	모집단위(학과·영역)	학 령	100% 선발인원	대 학	모집단위(학과·영역)	학 령	100% 선발인원	2. 지원자격			
서울대	영어학부(영어학전공, 영어문학전공, 영문학과전공)	100	7	120000	인문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회학전공, 언어학전공)	100	6	120000	1. 모집인원	· 신입생 : 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 이내
	영어학부	100	5	120000	사범학부	영어학부(영어학전공, 영어문학전공, 영문학과전공)	100	6	120000		
	독일학과	100	5	120000	독일학과	독일학과	100	4	80000		
	노어과	50	2	50000	노어과	노어과	50	4	80000		
	러시아학과	100	5	120000	러시아학과	러시아학과	100	4	80000		
	일본학과	30	1	30000	일본학과	일본학과	30	2	50000		
	프랑스학과(프랑스어과)	30	1	30000	프랑스학과	프랑스학과	30	2	50000		
	네덜란드학과	30	1	30000	네덜란드학과	네덜란드학과	30	2	50000		
	스페인학과	30	1	30000	스페인학과	스페인학과	30	2	50000		
	중국어	100	5	120000	중국어	중국어	100	5	120000		
충남대	영어학부	100	5	120000	인문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회학전공, 언어학전공)	100	6	120000	2. 지원자격	· 재외국민 : ① 재외국민 70명 부고기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중, 초, 고교를 졸업하고 12년이상 우리 귀속 문화생활을 하고, 인문과 관련이 선행 · 편입학 : ② 7명(서울캠퍼스 영어과, 사범학과 제외)
	독일학과	100	5	120000	독일학과	독일학과	100	4	80000		
	노어과	50	2	50000	노어과	노어과	50	4	80000		
	러시아학과	100	5	120000	러시아학과	러시아학과	100	4	80000		
	일본학과	30	1	30000	일본학과	일본학과	30	2	50000		
	프랑스학과(프랑스어과)	30	1	30000	프랑스학과	프랑스학과	30	2	50000		
	네덜란드학과	30	1	30000	네덜란드학과	네덜란드학과	30	2	50000		
	스페인학과	30	1	30000	스페인학과	스페인학과	30	2	50000		
	중국어	100	5	120000	중국어	중국어	100	5	120000		
	영어학부	100	5	120000	영어학부	영어학부	100	5	120000		
서울대	영어학부(영어학전공, 영어문학전공, 영문학과전공)	100	7	120000	인문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회학전공, 언어학전공)	100	6	120000	3. 전형과목	TOEFL, TOEIC, TEPS 성적우수 하(65점) + 구술면접(35점)
	영어학부	100	5	120000	독일학과	독일학과	100	4	80000		
	독일학과	100	5	120000	독일학과	독일학과	100	4	80000		
	노어과	50	2	50000	노어과	노어과	50	4	80000		
	러시아학과	100	5	120000	러시아학과	러시아학과	100	4	80000		
	일본학과	30	1	30000	일본학과	일본학과	30	2	50000		
	프랑스학과(프랑스어과)	30	1	30000	프랑스학과	프랑스학과	30	2	50000		
	네덜란드학과	30	1	30000	네덜란드학과	네덜란드학과	30	2	50000		
	스페인학과	30	1	30000	스페인학과	스페인학과	30	2	50000		
	중국어	100	5	120000	중국어	중국어	100	5	120000		
충남대	영어학부	100	5	120000	인문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회학전공, 언어학전공)	100	6	120000	4. 전형일정	· 입학원서 교부 : 1999. 9. 6(월)~10. 2(토) · 입학원서 교부처 : 서울캠퍼스 입학처, 충남캠퍼스 교무처, 제1관 · 입학원서 접수처 : 서울캠퍼스 입학처, 충남캠퍼스 입학처, 제1관 · 입학원서 접수처 : 서울캠퍼스 입학처, 충남캠퍼스 입학처, 제1관 · 입학원서 접수처 : 서울캠퍼스 입학처, 충남캠퍼스 입학처, 제1관
	독일학과	100	5	120000	독일학과	독일학과	100	4	80000		
	노어과	50	2	50000	노어과	노어과	50	4	80000		
	러시아학과	100	5	120000	러시아학과	러시아학과	100	4	80000		
	일본학과	30	1	30000	일본학과	일본학과	30	2	50000		
	프랑스학과(프랑스어과)	30	1	30000	프랑스학과	프랑스학과	30	2	50000		
	네덜란드학과	30	1	30000	네덜란드학과	네덜란드학과	30	2	50000		
	스페인학과	30	1	30000	스페인학과	스페인학과	30	2	50000		
	중국어	100	5	120000	중국어	중국어	100	5	120000		
	영어학부	100	5	120000	영어학부	영어학부	100	5	12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과

TEL : 20-961-4471~2 FAX : 02-959-0392 인터넷 입시정보 : http://www.hufs.ac.kr